


동시 **김 목**

그건, 나도 그래


아빠가 밥상 새우젓갈 보고
이거 아버님이 참 좋아하셨는데
엄마가 손가락 반지 보며
이거 어머니가 주셨는데

아빠는 새우젓에
할아버지 보고 싶고
엄마는 손가락 반지에
외할머니 그림단다

그건, 나도 그래
깜박 잊은 숙제에 선생님 꾸지람
귀찮은 이 닦기에 엄마 잔소리
생각나거든
하지만 보고 싶고 그림지는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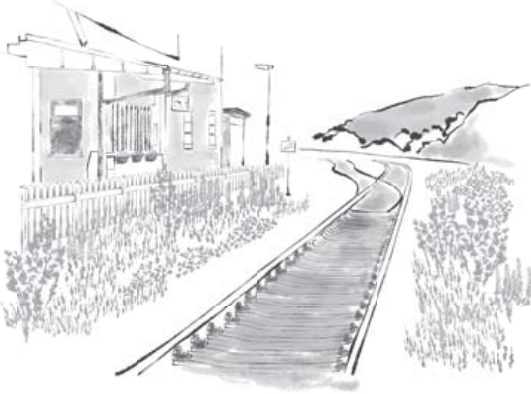
약력
▲중앙일보 동화, 광주일보 시
▲동화집: '붕붕이와 친구들의 모험'
▲기행 동화집: '이순신 길을 걷는 아이들'




시 **이선근**

구례구역에 서서

종착역 앞에서는
하도 해집어 쌓던
바람도
그의 날이 닳고 닳아
이파리도 감쌀 만큼
길들어진 소리만 남았다
갈대밭 바람도 그랬다
구례구역에 내려
지리산에 가는 사람들,
같은 내려놓고
바람으로만 갔다
타고 떠난 줄만 알았던
인생의 시발역
그 앞에 내가 서있다
섬진강 바람
한 점 걸치고서



약력
▲문학춘추 신인상, 무등산문학백일장 최우수상 수상
▲문학춘추작가회 회장, 서운문병관문학연구소 사무국장 역임
▲광주문협, 한국문협, 국제펜문학 회원
▲시집: '꽃이 되려는 조건', '틈새로 달을 품고', '풀 비린 향기', '하늘 숲소리', '겨울나무도 푸르다', '여우비 오는 날 은어우는'




시 **최도순**

환절기-너에게로 가는 길

달빛에 늘어진 앙상한 가지가 창을 두들긴다
산후풍에 시달리는 아낙처럼 온 마디마디가 시려온다
구들장을 붙들고 공터처럼 험한 이불 속에서
달아오르는 신열과 목젖을 타고 솟구치는 물음에 시달린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너의 말, 눈빛, 몸짓들
콜록이는 기침으로 파고들어 끈질기게 물어뜯는다
눈물 대신 땀에 젖은 문장들을 주기도문처럼 내뿜는다
가난한 면역은 젖은 기억을 불러 악몽에 시달리고
열꽃을 피우고 떨게 한다
몸 구석구석 남겨진 솜털의 따스한 흔적들이 혈관을 타고 되살아 온다
머리보다 가슴이, 가슴보다 발이 허공을 가로질러 달려가게 한다
차가운 달빛이 서러워 몸을 데운 포도주가
어슴푸레하게 산자락을 물들일 때
술기운 아른아른 물안개로 피어나는 강변을
물구나무 선 음표 되어 휘청이는 두 다리로 너에게 간다
질기고 질긴 맹목적인 그리움의 끝은 어디일까?
몇 번이고 되돌아본다
배경으로 희미해진 꿈결 같은 날들
꽃물이 주룩룩 떨어진다
너에게로 가는 길이 떨어지는 꽃물처럼 직선이라면
시린 몸으로 안개 속을 흐느적거리며 너에게로 간다

약력
▲시인, 시낭송지도자
▲어운시옴문화 대표
▲어운시낭송아카데미, 광주문학관 시낭송 지도
▲한국문학공연예술원 '시담' 이사
▲광주문인협회 사무국장
▲한국신석정시낭송협회 부회장



수필 **고효아**

낙엽 한 잎

가을이 깊어 간다. 햇빛과 바람의 직조로 자연의 색깔은 소리 없이 변신한다. 사철 푸른 줄만 알았던 소나무도 가까이 보니 가지의 아래쪽에서부터 노란색으로 물이 든다. 한지에 물감이 번지듯 녹색을 슬그머니 밀어내고 저마다 곱디고운 가을 색으로 스며든다.

아침에 마당으로 나가니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다. 갈색으로 변해버린 잣나무와 솔잎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잎들이 간밤에 소리 없이 낙엽 되어 돌아왔다. '한 이파리의 나뭇잎이 떨어지므로 해서 천하가 가을임을 알게 된다.'는 말이 떠오른다.

짜리미로 쓸어 마당의 한 귀퉁이에 모아놓고 한참 동안 바라본다. 차가운 이슬과 아직 남아있을 운기로 씩어 기름진 흙이 되면 내년 봄 발에 뿌릴까. 아니면 성냥 그어 불을 지피고 낙엽 타는 냄새를 맡으며 피어오르는 연기에 또 한해의 이지러짐을 생각할까.

바람이 분다. 마른 낙엽은 작은 바람에도 뒤적인다. 세상 인연에 집착하기에는 너무나 가볍다. 작은 소망도 놓아버리고 떨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서늘하다. 이슬의 무게도 버거운 듯 함초롬히 젖어 있다. 많은 날을 비에 씻고 바람에 닦아도 또 씻을 것이 남았나 보다.

작은 낙엽들 위에 거무스름한 진갈색의 커다란 잎이 두꺼비 형상으로 웅크리고 있다. 플라타너스 잎이다.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


도 없이 추위가 닥쳐와 어찌할 바 모르고 거리를 헤매는 군상의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 생의 끝자락이란 말인가. 플라타너스 낙엽 한 잎을 손에 들고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듯 몸의 모든 기능을 눈에 모아 초점을 맞추고 낙엽을 본다. 이른 봄 나무의 두꺼운 표피를 뚫고 힘차게 돌아나던 기백은 흔적도 없다. 뽀내고 자랑하던 멋도 찾을 수가 없다. 일상의 바람도 이겨내지 못하고 찬 기운에 살갗이 군데군데 터졌다.

천바람이 분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당당했던 풍채는 간 곳이 없다. 비바람과 태풍을 견뎌내던 용기와 인내심도 놓아버렸다. 변명을 간직하고 풍요를 노래했던 욕망도 사라졌다. 캄캄하고 단단한 땅속 돌 틈 사이의 물결기로 피워낸 환희의 함성도 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낙엽처럼 가벼워지는 것인가. 바람이 분다. 저항 없이 날린다. 그때마다 바스락거리는 것은 가슴속을 다 비웠음을 알리는 몸짓이려나. 그리고는 썩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나를 짓누르는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아름다울 수도 자유로울 수도 없다. 가벼움의 행복도 알 수가 없다.

낙엽을 얼굴 가까이 대고 눈을 감는다. 비우므로 낙엽해지는 울림이 전해온다. 진실한 삶의 냄새가 향기로 스민다.

약력
▲창작수필 동단(1995년)
▲에세이스트 '올해의작가상2005' 수상
▲제20회 광주문학상 수상
▲수필집: '여울소리', '허수아비'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